



## 대림요리학원에는 왜 수험생들이 많을까?

### 한국음식정시경영대회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영순 원장의 교육비법

지난 4월 23일, 서울aT센터에서 열린 한국음식관광박람회 한국음식정시경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영순 원장이 운영하는 대림요리학원에는 언제나 자격증을 따려고 찾아오는 수험생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다면 대림요리학원에서 이처럼 자격증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기자는 대림요리학원을 찾아가 김영순 원장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다.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재외동포(F-4)자격을 부여해주는 정부 정책이 실시된 후 중국동포들에게는 자격증을 따는 열풍이 일고 있다. 한국생활에서 자신을 개발하여 좋은 직장을 구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또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동포들은 더욱 노력하고 있다. 특히 귀국 후 창업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따기 위하여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만 이들의 정착지는 결국 대림요리학원이었다.

대림요리학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기에 이처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김영순 원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차츰 풀리지기 시작하였다.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은 마음먹고 노력하면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업종에서 일을 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동포들이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동포들이 접근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동포들이 큰 기술이 없다면 평상시 집에서 요리를 하고 살림을 하면서 경험해온 데 비추어 보면 그래도 요리자격증을 따는 것이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실정에 맞게 자격증 공부를 하다 보니 이들이 선택하는 학원은 바로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의 형편에 맞는 교육방법과 안심 맞춤형 교육비용이었다고 한다.

특히 대림 3동에 위치한 '대림요리전문학원'은 수십년간의 교육경험을 살린데다가 김영순 원장의 활동경력과 단시일 내에 많은 합격자를 배출해 냈고 또 책임감으로 수험생들의 관리까지 해주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김영순 원장의 이력과도 갈라놓을 수가 없었다. 김영순 원장은 지난 2010년에는 세계음식관광박람회서 농림수산부 장관 상을 받았고 또 같은 해 "모두

를 위한 맛" 디자인대회에서 서울시장상을 받았다. 올 4월 23일에는 서울aT센터에서 열린 한국음식관광박람회(경연부문 50개, 참가선수 2천명) 한국음식전시대에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이외 김 원장은 국립민속박물관 보조교육강사, 제병관리사1급 기능사, 전통혼례음식 1급기능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KBS-2채널 '생생정보통' 프로그램에 소개되는 자신의 음식요리문화에 대한 애착을 고스란히 세상에 알리기도 하였다.

김영순 원장은 "한식은 일상에서 먹는 한국음식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것으로 한식은 외국에서도 건강식으로 알려진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한식 업에 종사하는 중국동포들에게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은 가장 실용적이고도 한식문화의 세계화를 이루는데 기여하게 될 전방 있는 업종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동포들이 한식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또 자격증을 따서 체류자격도 변경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면 정확한 태도를 가지고 뛰어드는 것이 제일 현실적이라고 말한다. 현재 일부 동포들이 자신의 취미와 경력,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쉽게 자격증을 따기 위하여 아무런 업종이나 선택한다면 자격증을 따는데도 문제가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는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동포들이 자격증을 따는 데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식문화에 기여하기 위한 준비도 함께 한다면 즐겁고도 성취감을 느끼면서 큰 수익도 창출할 수 있기에 이러한 마음을 가진 수험생이라면 언제든 찾아달라고 하면서 이들에게는 자격증을 비교적 빨리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이며 정예반까지 구성해 집중 지도를 해주는 한편 또 강사진도 2011년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강사까지 동원하여 동포들의 자격증시험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대림요리학원의 이 같은 운영방식과 책임성 있는 자세, 훌륭한 강사진의 조화로 하여 현재 이 학원에서 교육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수험생만도 천명을 넘는다고 한다.

/본사기자

대림요리전문학원  
상당전화 : 02-849-5700

## '중국의 날' 행사 19일, 서울광장서 열린다

서울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서울 시민들이 함께 모여 우정을 나누고 중국의 음식, 의상,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2014 서울-중국의 날' 행사(가19일(일) 오전 11시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2014 서울-중국의 날' 행사는 서울시,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 감숙성 인민정부, 주한중국대사관의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서울의 중심에서 중국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축제는 주한중국문화원, 한중문화우호협회, 한국이주여성연합회 등 중국인 커뮤니티가 주도해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며 10여 개 단체에서 50여 개 부스를 설치하고 중국 전통차 및 음식, 의복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마련한다.

개막식에서는 박원순 시장과邱



國洪 주한중국대사가 함께 용의 눈을 그려 넣는 '화룡점점' 행사도 열린다.

축하공연으로 감숙성 민속가무단, 당진월드아트서커스, 팜페라 그룹 '듀오아임', 열후양상을 '라얼후', 다채극주문화예술단의 공연이 열리게 되며 재한중국인문화예술단체인 한민족음악동호회와 다문화복지예술단의 공연도 선보이게 된다.

주한중국문화원은 매년 한 도시를 선정해 그 도시의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고 있는데 올해는 중국 서북지구 황하(黃河) 상류에 위치

한 감숙성이 선정돼 그 도시의 문화가 소개된다.

중국문화원과 중국 커뮤니티는 '중국의 날' 운영위원회를 조직해 매년 서울에서 '중국의 날'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매년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행사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환중 서울시 국제교류담당관은 "서울거주 중국인과 관광객, 서울시민이 함께하는 축제 한마당인 '2014 서울-중국의 날'은 주한중국문화원과 중국 커뮤니티 등 중국인들 주도하에 준비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 '중국의 날' 정기 개최를 적극 지원해 서울시민들이 중국문화를 함께 즐기고 한중 양국 시민들이 서로 친숙하게 다가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사기자

## KBS 제16회 북방동포 체험수기 공모결과 발표

KBS 한민족방송에서 주최한 북방동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체험수기 공모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이번에 실시한 수기공모는 북방동포 청소년 및 성인부문을 나누어 진행되어 참신하고 실감나는 사연을 담은 내용의 수기를 공모하였는데 중국 현지 학교와 사회에서 적극 참여하여 동포사

회의 문제점과 자신의 체험을 그대로 잘 반영하였는데 심사위원들의 세심하고도 정확한 엄선을 거쳐 총 23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이중 청소년 부문에서 중국 료녕성 심양시 조선족제2중학교 고종3학년 박동찬 학생의 '나는 작은 사람'이 대상, 중국 흑룡강성

계동현 조선족중학교 고종3학년 왕우 등 3명이 우수상을, 중국 흑룡강성 계동현 조선족중학교 고종3학년 최미영의 '상처 입은 나비' 등 10명이 장려상을 받게 되었으며 성인부문에서는 한민족신문사 전길운의 '한민족의 정체성에 대하여' 등 5명이 특별상을 받게 되었다.

/본사기자

# 포스코가 재한 중국동포들에게 드리는 선물

10월 26일, 아파트설명회 개최



浦項・道—大连首席智能化精装豪宅

모든 방문객에게 구매와 상관없이 공향만 마중, 건축물에 대한 설명회와 숙식 무료제공

구입문의 : 02-2637-0814, 010-6866-0815

浦項・道，诚挚欢迎您到大连购新建高档住宅！

### 아파트구매설명회 안내

대련경제개발구에서 포스코건설이 건설 중인 고층 아파트는 종합적인 생활공간으로서 가격이 저렴하고 환경이 좋아 동북 3성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물론 재한 중국동포들에게도 관심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재한동포들의 아파트구매에 도움을 주고자 10월 26일 오후 2시, 아파트 설명회를 가지고자 아래와 같이 공지한다.

행사장 : 대림역 10번 출구 대창신평 4층 회의실, 대림 3동 710-11  
행사일 : 2014. 10. 26. 14시 ~17시  
연락처 : 02-2637-0814, 010-6866-0815

